

서울특별시 남부기술교육원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1. 회부경위

- 가. 의안번호 : 제51호
- 나.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 다. 제출일자 : 2018년 8월 16일
- 라. 회부일자 : 2018년 8월 21일

2. 제안이유

- 실업자, 비진학청소년 등 저소득 시민과 기타 직업훈련이 필요한 시민에게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을 실시하여 경제적 자립을 도모하고 서울 산업 및 국가기간전략산업 등에 부족한 산업기능인력을 양성하고자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남부기술교육원」에 대해
- 금번 수탁기간 만료가 도래함에 따라, 사업성과 도덕성을 갖춘 능력 있는 민간단체가 선정되어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의거 서울특별시 의회의 동의를 얻어 민간에 위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 서울시 남부기술교육원 운영 민간위탁

나.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 추진근거

-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제6조
- 서울특별시 직업교육훈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

○ 추진현황

- 1988. 9 : 엘림직업훈련원 개원 ※ '91.8 건물기부채납 민간위탁 실시
- 2011. 8 : 2.6년 재계약(1차 엘림복지회)
- 2014. 3 : 2년 재위탁(2차, 엘림복지회)
- 2016. 3 : 3년 재위탁(3차, 엘림복지회)
- 2018. 6 : 정규과정 및 단기과정 13개학과 580명 훈련중

○ 추진필요성

- 직업훈련사업은 전문 기능인력양성을 통해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고도의 기능인 양성을 위한 전문인력 고용, 훈련 장비 조작, 교육재료 관리 등에 대한 전문성을 필요로 함
- 또한, 전문민간 훈련기관들과 경쟁력을 강화해야 하고, 취업률 제고와 직업훈련 서비스의 질을 향상해야 하므로 민간위탁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다. 위탁 대상 사무 등 위탁 범위

○ 서울시 직업훈련 사업

- 취업촉진지원 및 지역활동지원 사업
- 학교 시설 및 장비의 관리
- 기타 학교의 관리·운영에 전반에 관한 사항

라. 위탁시설 개요

- 시설명 : 서울특별시 남부기술교육원
- 소재지 : 경기도 군포시 고산로 589
- 시설규모 : 대지 58,523 m^2 , 건물 24,185 m^2 (11개동)

마. 민간위탁기간 : 3년(2019. 3 ~ 2022. 2)

바.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

사.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 연간 약 4,205백만원

4.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강상원)

가. 동의안의 개요

- 서울시가 취약계층의 취업능력을 제고하고 산업수요에 부합하는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운영 중인 ‘서울시 남부기술교육원’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이의 재위탁을 위해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임.
- 남부기술교육원은 1991년부터 계속 위탁운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아,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부칙 제2조1)에 따라 조례 공포 후 최초 도래하는 재위탁에 대해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한 것임.

나. 남부기술교육원 운영 현황

- 서울시는 비진학·미취업 청년 및 실업자 등 취약계층의 취업능력을 제고하고, 산업수요에 부합하는 맞춤형 인력을 양성하고자 네 곳의 기술교육원(동부, 중부, 북부, 남부)을 운영하고 있음.
- 이 중 남부기술교육원은 1988년 엘림복지회가 개원한 엘림직업훈련원을 1991년 서울시에 기부채납(건물 등 자산 일체)한 후,

1) 부칙 제2조(의회동의 절차의 특례)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은 사무의 경우 제4조의3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조례 공포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현재까지 위탁 운영 중에 있음.

- 그동안 타 기술교육원은 수탁기관 변경이 있었던 반면, 남부기술교육원은 기부채납에 대한 운영협약(20년 위탁운영) 기간을 넘어 28년째 동일한 수탁기관에서 운영해 왔음.

〈남부기술교육원 현황〉

- 위 치 : 경기도 군포시 고산로 589
- 원 장 : 이 종 만 (직무대리)
- 조 직 : 2부 (43명)
- 수탁기관 : (사회복지법인) 엘림복지회 (대표 : 이계안, 이영훈)
- 최초위탁일 : 1991.8.24
- 현재위탁기간 : 2016.3.1~2019.2.28 (3년간)
- 위탁운영 선정방식 : 2011.8 재계약(2.6년)
2014.3 재위탁(2년)
2016.3 재위탁(3년)
- 2018년 훈련인원 : 18개 학과 775명(시 과정 13개 학과 580명)
- 2018년 사업예산 : 25억 7천7백만원

- 그동안 남부기술교육원은 기업체 현장실습을 30% 수준으로 강화시켜 현장과 강의실을 병행하여 교육하는 듀얼시스템 운영, 서울산업진흥원과 연계한 창업보육센터 운영, 인생이모작을 준비하는 은퇴자들을 위한 베이비부머 과정(웃칠나전, 건물관리 등) 운영 등 다양한 직업 특화훈련을 실시해왔음.

- 또한 수료생의 80% 이상이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고, 서울시 및 전국 기능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기록하는 등 수료생의 교육 성과는 비교적 우수한 편이며, 기술교육원 중 유일하게 현대자동차 상용차부문과 특별 MOU를 실시하고 있음.
- 남부기술교육원의 최근 3년간 수료생의 취업률은 다음과 같으며, 정규과정 이외 단기과정의 취업률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 중임.

〈최근 3년간 남부기술교육원 수료생 취업률〉

년 도	2015	2016	2017	비고
취업률(%)	52.5	57.2	68.3	정규과정

- 이밖에도 타 기술교육원과 달리 유일하게 서울시의 외국 자매·우호도시의 교육생을 선발하여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2018년 10개국, 45명의 외국인교육생이 그린자동차정비, 외식 조리, 헤어디자인, 웹 프로그래밍 등의 교육을 받고 있음.
-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남부기술교육원은 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및 서울시의 특별조사 등을 통해 법인사무실의 목적 외 사용,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 시 법인 내 타 기관과 통합하여 입찰, 교육원 운영 규정 미비 등 기술교육원에 대한 다양한 문제들이 지적되어 주의 및 시정조치 요구를 받은 바 있음.

〈2016년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시 특별조사 지적사항 조치내역〉

- 법인사무실을 사용허가 목적에 맞게 사용
- 본관동 입구 옆 화단의 법인 설립 20주년 기념비 철거
- 2017년 식당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 시 운영법인과 상관없이 교육원 단독으로 입찰 실시
-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등에 있어 지방자치단체 계약회계규정 준수
- 법인전입금을 예산집행지침에 의거 사용용도 명시, 사용내역 관리
- 사용하고 있는 회계프로그램 계정별 원장 입력철저
- 물품 및 공사발주 시 관련 법률을 적용하여 서울 및 경기도로 지역제한
- 직원 채용 시 공개 채용
- 법인과 기술교육원을 분리하여 남부기술교육원 운영규정 제정

- 이밖에도 기술파트 직원의 법인업무 관여, 교육생들의 행사 동원, 상임이사의 교직원 인권침해 등 추가적인 문제점이 발견됨에 따라 서울시의 특별조사가 재실시되어 법인이사가 해임되는 사태까지 이르게 되었음.

〈2017년 남부기술교육원 시 특별조사 추진내역〉

- 2017.12. 4. 감사위원회(조사담당관)에 특별조사 의뢰
- 2017.12.28. 허가조건을 위반하여 운영 중이던
기술교육원 내 법인사무소 이전 완료
- 2018. 1. 5. 인권담당관(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성희롱 사건 조사 및 시정 권고

- 2018. 1.11. 법인이사 2명(공동대표 조용목, 상임이사 설상화) 사임
- 2018. 1.19. 수탁법인 및 남부기술교육원 이행조치
 - ▶ 수탁법인 : 법인이사 해임, 해임이사 재취업 금지,
향후 동일·유사사례 발생 방지
 - ▶ 남부교육원 : 피해자 보호(심리치료, 유급휴가),
피해자 신분노출 등 2차피해 방지,
직장내 성희롱 방지대책 수립 및 시행

- 이에 의회에서는 시정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수탁법인의 방만한 경영과 지도·감독의 의지가 없는 서울시의 태도를 지적하며, 2018년 남부기술교육원 예산 중 20억 8,200만원을 감액한 25억 7,700만원을 의결하였음.
- 이에 남부기술교육원은 상반기 2개 학과 폐과, 교육인원 감소, 교육시간 축소 등의 자구노력을 했으나, 하반기 정상운영이 불가능하여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운영비를 보전할 계획임.
- 이외에도 남부기술교육원은 네 개 교육원 중 유일하게 경기도에 위치하여, 상시적인 지도 관리와 감독에 어려움이 있어 이전과 준치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있어왔음.
- 서울시는 이상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올 상반기에 “남부기술교육원의 개편방안 연구용역”을 실시하였으며, 기능재편과제로 △캠퍼스 서울시내 이전, △하이테크 특화캠퍼스로 개편, △위탁

폐지와 서울시 기술교육원 거버넌스 개편, △운영방식의 혁신 등이 제시된 바 있음.

다. 민간위탁의 타당성 여부

- 서울시 기술교육원은 취약계층을 위한 직업훈련기관으로, 인력 양성을 위한 전문 교육인력 고용, 훈련장비 구축 등 직업훈련에 대한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민간전문기관에 교육을 위탁하는 것은 행정기능의 비대화를 방지하고, 행정의 생산성과 효율성, 전문성을 높이는 수단이 될 수 있음.
- 이로 인해 남부기술교육원을 포함한 네 곳의 기술교육원도 각각 다른 위탁기관에서 맡아 운영 중에 있음.

구 분	동 부	중 부	북 부	남 부
위 치	강동구 고덕동	용산구 한남동	노원구 상계동	경기도 군포시
위 탁 법 인	(학)경북대학교	명지전문대학 산학협력단	(재)한국능력개발원	(사)엘림복지회
현위탁기간	'16.3.1~'19.2.28	'17.3.1~'20.2.28	'16.3.1~'19.2.28	'16.3.1~'19.2.28

- 그러나 남부기술교육원은 그 동안 감사와 조사를 통해 시설 운영, 계약회계, 인사관리, 운영규정 등 전 분야에 걸친 문제가 반복 지적된 바, 현행과 같이 민간위탁 운영 방식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인지에 대한 의문이 듦.

- 즉 장기간 특정 수탁기관에서 교육원 사무를 위탁 처리함에 따라, 사명감과 공공성이 퇴색하고 법인 이익에 매몰되는 문제에 봉착해 있다고 판단되며, 서울시 또한 행정 권한의 위탁자로서 민간위탁 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함.
- 따라서 관행적인 민간위탁 방식에 국한하지 않고, 서울시에서 직영하는 방법이나, 민간 기술교육 시장에 완전 이양하는 방안, 재단 설립을 통한 네 개 교육원의 통합운영 등 기술교육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에 대한 심층적 검토가 필요한 시점으로 판단됨.

담당조사관	연락처
김나래	02-2180-8057